

지원에서 교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에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약 2,240 명이 살고 있다. 피폭지(히로시마시) 시민과 피폭 당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재외피폭자에게도 원호제도가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한 활동으로 원호 격차를 없애고 한일 관계자들은 ‘지원’만이 아닌 ‘교류’를 모색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 섰다. 활동 저변에 깔려 있던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는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피폭체험을 계승하려는 시도에서 이다. 이 달 히로시마의 시민 단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그 행적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시해 보았다.[구와지마 미호 桑島美帆]

한국 대구와 히로시마의 회 결성

피폭체험 계승. 젊은 세대에 기대

조용한 전원풍경으로 둘러싸인 한국 남동부에 위치한 합천군. 이 달 20 일, 약 백명의 원폭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의료시설 ‘합천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 히로시마의 시민단체 ‘한국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모임 히로시마지부[나카다니 에쓰코(中谷悦子) 지부장]’ 관계자가 방문했다.

입주자의 평균연령은 84 세.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고 해방 후에 귀국한 사람들이다. 교류회에서 맨 앞 줄에 앉아 있는 이수용 씨(90 세)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수용 씨는 폭심지로부터 1.5 킬로 떨어진 히로시마적금국에서 피폭했다. 피투성이가 되어 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1945년 11월에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다.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를 몰라서 생활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 씨. 네 명의 자녀를 키우고 8 명의 손주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손주에게 피폭체험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원폭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손주가 결혼하는데 지장이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라고 했다.

뿌리깊은 긍정론

한국에서는 원자폭탄 투하가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일본의 패전과 조선반도에 해방을 불러왔다고 하는 긍정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고, 원폭피해 체험을 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거의 없다. “차별도 있고 원폭피해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것이) 피폭체험이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기도 하다.”라며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이규열 회장(73 세). 그는 태내피폭자이다.

“지금 고령이 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재한피폭자의 체험과 지원활동의 역사를 전하고 싶다”. 히로시마지부의 도요나가 게이사부로(豊永恵三郎) [83, 히로시마시 아키쿠] 씨는 1972년부터 재한피폭자의 피폭자 건강수첩 취득이나 도일치료에 주력해서 지원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번의 한국 방문은 대구시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와 제휴하여 교류 활동의 기반이 되도록 ‘핵무기 폐절과

평화로운 세계 실현을 지향하는 대구와 히로시마의 모임'를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히로시마지부의 멤버들은 한일의 젊은 세대가 함께 양국 피폭자들의 체험에 귀를 기울여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핵무기 폐절을 위해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태어나서 9 개월 쯤에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부산지부의 류병문 지부장[74 세]은 “원폭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다. 일본어도 모르고 원폭피해 체험도 기억나지 않으나 (일본 원폭피해자들과) 교류해 나가고 싶다.”며 공감을 표명했다.

엇갈린 인식

그러나, ‘원폭피해’ ‘다음 세대’를 둘러싼 인식에는 미묘하게 엇갈린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현지의 원폭피해자 중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우리들과 지배자였던 일본 원폭피해자와는 입장이 틀리다’며 강한 의식을 표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는 핵무기폐절 운동보다 피폭 2 세, 3 세의 의료 지원을 요구하는 운동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부산시에서 올 봄에 2, 3 세에게 지원 항목을 넣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합천군에 2 년 전에 오픈한 원폭자료관 전시도 한국원폭피해자의 고통을 전함과 동시에 “원폭피해자의 자녀나 손주 세대에도 건강문제가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식민지 통치하던 시대의 빈곤이나 징용, 징병. 귀국 후에는 조선전쟁에 휘말려 원호를 받지 못한 채 피폭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히로시마지부의 관계자들은 “원폭피해를 한국인의 고난의 역사로 보고 히로시마 시민이야 말로 재외피폭자들의 체험을 계승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평화교류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

핵 없는 세계로 함께 행동 한판계 지부장

한국의 원폭피해자 단체가 본 히로시마와의 교류 의의에 대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의 한판계 지부장님(82 세)에게 물었다.

원폭피해자 당사자들끼리의 교류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 (지금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나,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은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으며, 정치 상황은 관계 없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여 같이 행동해 나가고 싶다.

일본에 건너 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대다수는 빈곤한 가정 출신으로 일본이 패하고 (조선이) 해방되어 조국으로 귀국했으나, 생활의 기반이 없어서 고생을 해야만 했다. 원폭피해자는 이중으로 차별을 받아 왔다. 결혼도 어려웠고, 이혼 위기에 놓여지고 한 사람들도 많다. 체험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8 세 때에 우치코시초(打越町)[현재, 히로시마시 니시쿠]에서 원폭피해를 입고 오시바공원(大芝公園)에 피난을 갔다. 온 몸에 피부가 녹아버린 것 같이 타서 주욱 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광경이었다. 원자폭탄은 정말로 무섭다.

조선반도는 분단되어 북한의 핵문제를 안고 있으나, 우리가 체험한 것과 같은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원폭피해의 실태를 전하는 사진전을 열고 싶다. 물론 상호 방문하며 교류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히로시마 방문을 검토 중이다. 한국인 피폭자로서 피폭 당시와 그 후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번역; 안금주)

※() 은 번역자가 삽입한 것임.